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2.9월]

-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약세 요인 혼재로 높은 변동성 장세 지속 예상 -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김희진 | 책임연구원(3705-6225)

동향

- [원자재지수] 8월 S&P GSCI는 농산물을 제외한 전 부문 약세로 3개월 연속 하락(-3.9%). 농산물은 글로벌 가뭄 등 농업기상여건 악화로 4개월만에 반등
 - 부문별로 에너지 -6.3%, 농산물 +4.7%, 산업금속 -3.1%, 귀금속 -3.9% 등
 - 금년 누적 상승률은 S&P GSCI +18.7%, 에너지 +33.4%, 농산물 +7.1%, 산업금속 -14.6%
- [품목별] WTI -9.2%, 美 천연가스 +10.9%, 유럽천연가스 +17.6%, 豆 휘발유 -14.9%, 옥수수 +9.3%, 소맥 +0.2%, 대두 -7.9%, 구리 -1.5%, 알루미늄 -5.2%, 니켈 -9.3% 등
 - 러시아발 가스공급 차질로 천연가스 가격 강세 지속(단, 월말 차익매물 등으로 상승폭은 크게 축소). 옥수수는 美 생산 예상 하회 가능성으로 4개월만에 반등, 구리는 경기 우려로 약세 지속

주요 이슈 및 전망

- [원유] 국제유가는 경기전망 등이 지배적 이슈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우디 감산 시사, 이란 핵협정 복원 가능성 등 다수 변수들로 인해 8월 후반과 같은 고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소지
 - 9.5일 예정된 OPEC+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 이란 핵협정 복원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나 복원 시 일일 100만배럴 이상의 원유가 추가 공급될 전망
 - 최근 원유 선물시장에서 백워드이션(근월물>원월물, 공급부족 신호)이 큰 폭 약화됨에 따라 시장수급의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
- [곡물] 국제곡물 가격은 본격적인 수확철의 시작으로 전반적인 수급여건이 개선되겠으나 날씨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Weather Market이 이어질 소지
 - 주요국 농업기상여건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상황, 중국 수요둔화 우려, 전반적인 원자재시장 투자심리 등 변수가 상당
- [비철금속] 국제비철금속 가격은 전년도 대비 수급 개선과 아울러 경기에 대한 우려 지속 등으로 당분간 하방압력이 이어질 전망
 - 지정학적 불안으로 공급 우려가 상존하나 경기부진으로 특히 중국의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전망. 인도네시아의 니켈에 대한 수출세 부과의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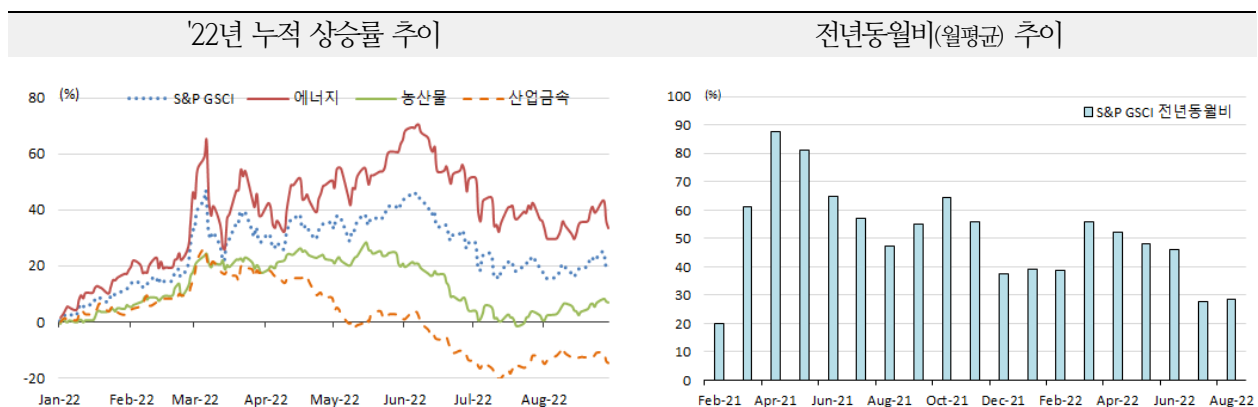
1.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 S&P GSCI 추이

- 8월 S&P GSCI는 농산물을 제외한 전 부문 약세로 3개월 연속 하락(-3.9%). 농산물은 글로벌 가뭄 지속 등 농업기상여건 악화로 4개월만에 반등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지수	7월말	8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동월비(%)
S&P GSCI*	692.64	665.93	-3.9	18.7	26.3
에너지	359.10	336.62	-6.3	33.4	43.2
농산물	456.95	478.39	4.7	7.5	16.1
산업금속	439.85	426.06	-3.1	-14.6	-11.0
귀금속	2304.57	2215.46	-3.9	-7.4	-7.1
축산물	345.99	340.92	-1.5	5.9	9.0

* WTI, 美천연가스, 소맥, 옥수수, 원당, 구리, 니켈,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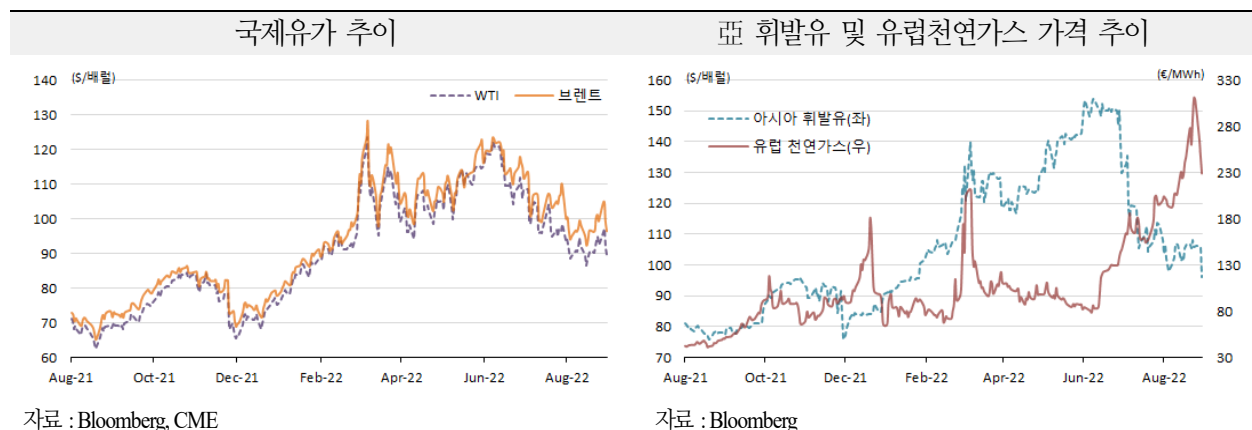
2. 원유

□ [8월 시황] WTI 전월 대비 -9.2%, 美 천연가스 +10.9%, 유럽 천연가스 +17.6%

- WTI는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시사, 경기 우려,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 월 후반 사우디의 감산 시사 이후 \$85~97에서 움직이며 변동폭 크게 확대
- 유럽 천연가스는 러시아발 공급위기 가능성이 심화되며 60% 가까이 급등한 후 독일의 예상보다 빠른 재고 비축 등으로 낙폭 축소. 美 휘발유는 성수기 종료 등으로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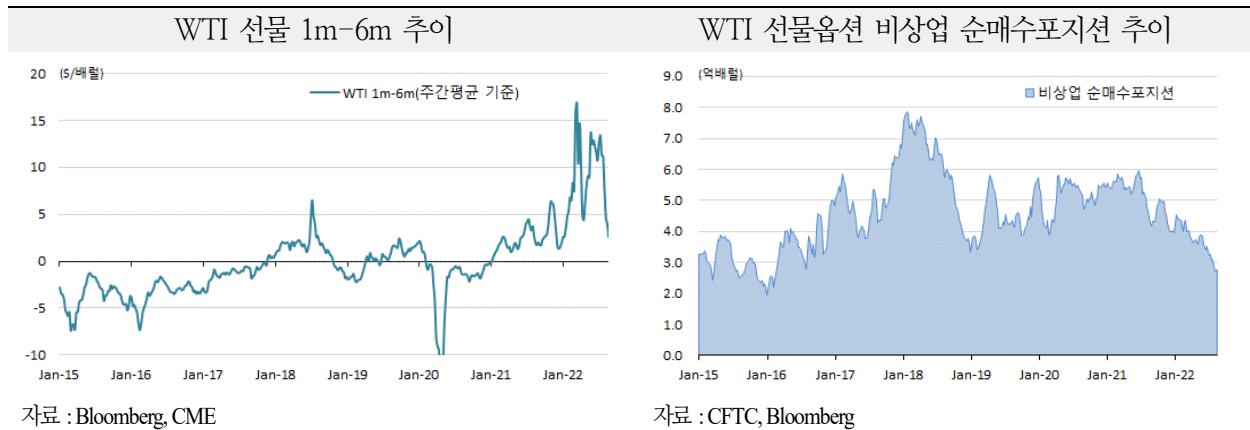
품목	7월말	8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 동월비(%)	평균가격	
						'21.	'22.(ytd)
WTI(\$)	98.62	89.55	-9.2	19.1	30.7	68.08	100.06
브렌트(\$)	110.01	96.49	-12.3	24.1	32.2	70.95	104.00
두바이(\$)	105.80	95.55	-9.7	24.9	37.8	69.01	102.79
美휘발유(\$)	146.50	109.45	-25.3	16.9	14.2	89.13	135.05
亞휘발유(\$)	113.02	96.21	-14.9	6.5	23.2	76.97	120.07
美천연가스(\$)	8.23	9.13	10.9	144.7	108.5	3.723	6.558
유럽천연가스(€)	194.70	228.90	17.6	249.5	354.4	47.38	126.98

주 : NYMEX-ICE 선물가격 기준(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 단 두바이유, 亞휘발유(Ron 92 기준)는 현물가격.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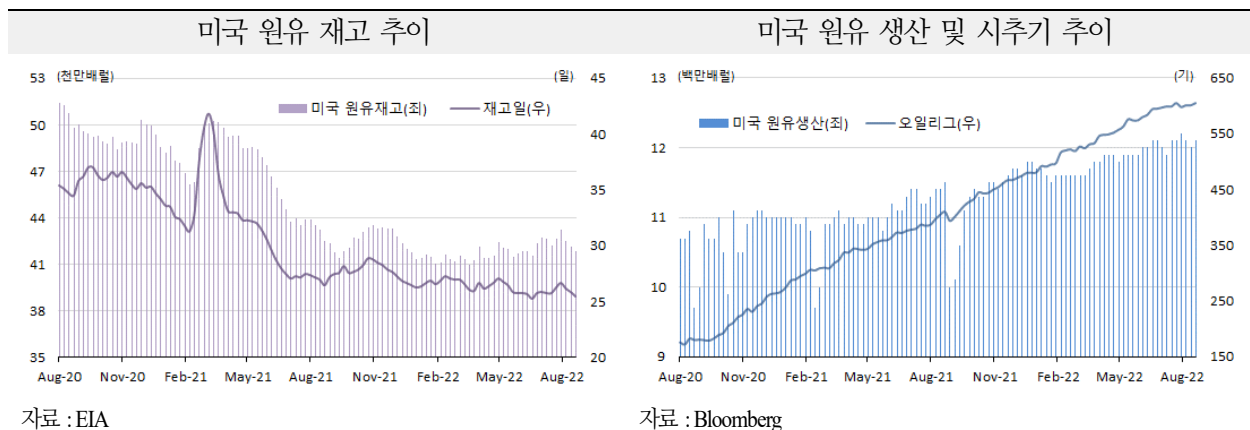


□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

- WTI 선물시장 지표 : 공급부족 시기에 나타나는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큰 폭 완화
 - WTI 1개월물과 6개월물 스프레드(1m-6m)은 8월 4주차 기준 \$3.8로 7월초의 \$13.4 대비 큰 폭 하락. 이는 시장의 공급부족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연초(4.53억배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8.23일 2.98억배럴 기록.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를 반영



- 미국 실물지표 : 원유재고는 5월 이후 4.2~4.3억배럴에서 정체, 생산도 6월 이후 정체 양상
 - 원유재고는 8.26일 4.18억배럴로 8월초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5월 이후 큰 변화가 없으며, 재고일(days of supply)도 26일 내외 수준 유지
 - 원유생산은 8.26일 일일 1,210만배럴로 월초에 비해 10만배럴 감소했으나 6월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시추기(oil rig)는 8.26일 605기로 증가(20년 3월 이후 첫 600기 돌파)
 - 원유수요(4주 평균)는 8.26일 일일 2,003만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7월 이후 전년동기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 지속



- OPEC 및 중국 지표 : 사우디 OSP(對亞 9월인도분) 사상 최고치, 중국 수입 2개월 연속 감소

	5월	6월	7월	비고
OPEC생산(일 백만배럴)	28.72	28.78	29.05	• 사우디 증산이 리비아 등의 감산을 상쇄
여유생산능력	4.70	4.64	4.91	• 이란 제외하면 일 360만배럴
사우디 OSP(對亞)	\$6.5(7월인도)	\$9.3(8월인도)	\$9.8(9월인도)	• 사상 최고치. 亞의 견조한 수요 반영
중국 원유수입(백만톤)	45.82	35.82	37.33	• 전년동월 대비 -9.5%(연간으로 -4.0%)

주 : OSP(Official Selling Price)는 두바이유/오만유 대비 프리미엄을 의미. 자료 : Bloomberg

□ [이달의 관전포인트] 사우디 감산 시사, 이란 핵협정 복원 기대, 유럽 가스난 심화 등

- 사우디, 국제유가 부양을 위한 감산 가능성 시사
 - 사우디 석유장관은 8월 중순 최근 국제유가가 시장의 수급(공급부족)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감산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 UAE, 이라크 등도 사우디의 감산에 동조하고 있는 가운데 9.5일 예정된 OPEC+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 시장에서는 OPEC의 감산이 이른 시일 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란 핵협정 복원 여부와 연계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 진전. 다만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
 - EU의 중재안에 대해 미국과 이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미국이 '18.5월 탈퇴한 핵협정(JCOPA)이 조만간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 점증. 다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추가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 한편 JCPOA 복원 시 일일 100만배럴 내외의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여 시장 수급이 크게 개선될 소지
- 다가오는 유럽 가스 위기, 원유수급에도 악영향 우려
 -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을 대폭 축소했으며 9월초 또다시 일시적인 공급 중단을 선언. 유럽 각국이 가스재고 비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겨울철 가스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
 - IEA는 유럽이 발전연료로 가스 대신 석유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8월 전망보고서에서 금년 세계 원유수요를 일일 38만배럴 상향조정(※OPEC은 경기 우려로 30만배럴 하향조정)

□ [전망] 국제유가(WTI 기준)는 경기전망과 연준 정책이 계속해서 지배적 이슈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우디 감산 시사, 이란 핵협상, 유럽 가스난 등 변수들이 다수 상존하여 8월 후반과 같은 상당한 고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가능성

- 선물시장에서 월물간 가격스프레드에 주목할 필요. 백워데이션 → 콘탱고(contango) 전환 시 수급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8월(a) ¹⁾	'22.3Q(f) ²⁾	4Q(f) ²⁾	'23.1Q(f) ²⁾	2Q(f) ²⁾
WTI	91.48	97(-)	92.67(+0.67)	92(-)	92(+5)
브렌트	97.74	100(-)	95.67(+0.67)	95(-)	95(+5)

주: 1) 8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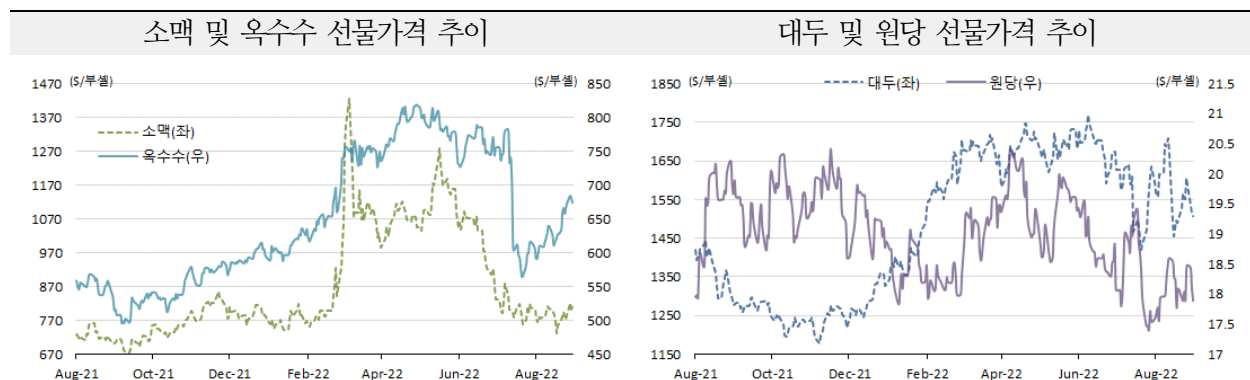
3. 곡물

□ [8월 시황] CBOT 옥수수 전월 대비 +9.3%, 소맥 +0.2%, 대두 -7.9%

-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4개월만에 비교적 큰 폭 반등하며 5월 중순 이후 최고치 기록
- 소맥은 우크라이나 수출이 재개된 가운데 저가 매수세 등으로 3개월만에 상승 전환. 대두는 미국과 남미의 긍정적 생산 전망으로 4개월 연속 하락

품목	7월말	8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 동월비(%)	평균가격	
						'21.	'22.(ytd)
소맥(cents/부셸)	807.75	809.00	0.2	5.0	14.5	702.0	942.01
옥수수(cents/부셸)	616.25	673.75	9.3	13.6	26.2	581.9	705.11
대두(cents/부셸)	1,637.00	1507.50	-7.9	13.5	16.1	1,374.7	1,606.52
쌀(\$/cwt)	16.89	17.51	3.7	19.7	33.3	13.3	16.14
원당(cents/파운드)	17.54	17.89	2.0	-5.2	-9.8	17.9	18.74

주 : CBOT-ICE 선물가격 기준. 부셸은 27.2kg, cwt는 45.4k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CBOT

자료 : Bloomberg, CBOT, 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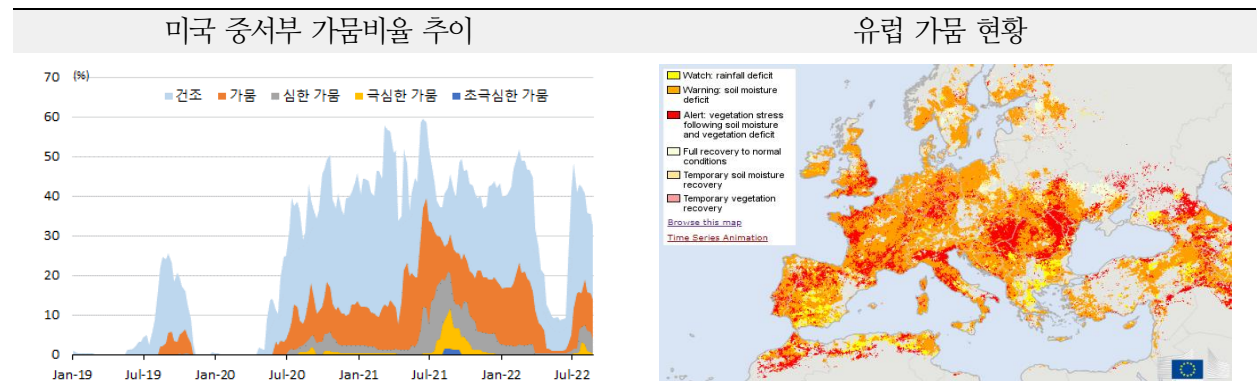
□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

- 美 곡물 작황 : 옥수수의 Good & Excellent 비율 지속적 하락, 보밀 수확률 부진
 - 옥수수의 G/E 비율은 7.17일 6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8.28일 54% 기록. 보밀의 G/E 비율은 70% → 68%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으며, 대두 역시 같은 기간 중 62% → 57%로 옥수수보다 양호
 - 수확이 시작된 보밀(8~9월)은 8.28일 현재 절반 정도 수확이 진행된 상황으로 예년 평균인 71%에 비해서 부진

	上級비율(Good/Excellent ratio)			수확률	
	8.21	전년동기	8.28	'17~'21 평균	8.28
소맥(보밀)	64%	11%	68%	71%	50%
옥수수	55%	60%	54%	-	-
대두	57%	56%	57%	-	-

자료 : USDA

- 농업기상여건 : 美 중서부 콘벨트(corn belt) 지역 건조한 날씨 지속, 유럽 가뭄 심화
 - 미국 콘벨트 지역은 9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이 예상. 콘벨트를 포괄하는 중서부의 가뭄비율은 7월초(48%)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30% 이상 유지
 - EU는 전지역의 47%가 가뭄 경고(warning) 상태이며 17%는 경계(alert) 단계



자료 : US drought monitor

자료 : European Drought Observatory 인용

- 세계 곡물수급 : '22/'23년 곡물 전체 생산은 전월대비 소폭 하향조정, 소비는 소폭 상향

<세계 곡물수급 전망(억톤)>

	'21/'22	'22/'23		전년비	전월비		'21/'22	'22/'23		전년비	전월비
		7월	8월					7월	8월		
곡물						소맥					
생산	27.97	27.64	27.62	-1.3%	-0.1%	생산	7.79	7.72	7.80	0.05%	1.0%
소비	27.99	27.81	27.83	-0.6%	0.1%	소비	7.93	7.84	7.89	-0.6%	0.6%
기말재고	7.99	7.88	7.78	-2.7%	-1.4%	기말재고	2.76	2.68	2.67	-3.3%	-0.1%
재고율	28.6%	28.3%	27.9%	-0.7%p	-0.4%p	재고율	34.8%	34.1%	33.9%	-0.9%p	-0.2%p
옥수수						대두					
생산	12.19	11.86	11.80	-3.2%	-0.5%	생산	3.53	3.91	3.93	11.4%	0.4%
소비	12.00	11.85	11.85	-1.3%	-0.04%	소비	3.63	3.78	3.78	4.2%	0.1%
기말재고	3.12	3.13	3.07	-1.7%	-2.0%	기말재고	0.90	1.00	1.01	13.0%	1.8%
재고율	26.0%	26.4%	25.9%	-0.1%p	-0.5%p	재고율	24.7%	26.4%	26.8%	+2.1%p	+0.4%p

자료: USDA WASDE('22.8월)

□ [이달의 관전포인트] 美 옥수수 생산 전망 하향, 러·우크라 곡물수출 전망 상향 등

- 금년 미국 옥수수 생산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
 - Pro Farmers(美 농산물 전문 분석기관)는 금년 옥수수 생산이 130.8억부셸로 '19년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 이는 미 농무부 전망치 143.6억부셸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
 - 반면 대두 생산은 45.4억부셸로 농무부 전망치 45.3억부셸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전망 상향조정
 - Sovecon(러시아 농산물 전문 분석기관)은 최근 '22/'23년 러시아의 소맥 생산 전망치를 9,470만톤으로 380만톤, 수출 전망치는 4,310만톤으로 20만톤 상향조정
 - 우크라이나 농무부는 자국의 곡물수출이 10월 중 600~650만톤으로 수출이 재개된 7월보다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美 에탄올의 수요 둔화, 재고 증가
 - 8.26일 에탄올 블렌딩 수요(4주 평균)는 일일 91.6만배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배럴 감소, 재고도 8월 들어 증가세(8.26일 2,353만배럴로 5월 이후 최고치)
- 옥수수 및 대두에 대한 차익실현 진정 분위기, 소맥에 대한 투기자금 이탈 지속
 - CBOT 옥수수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7월말 15.0만계약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며 8.23일 24.7만계약 기록. 대두의 순매수포지션도 같은 기간 중 8.0만계약에서 9.5만계약으로 증가
 - 반면 소맥 선물옵션의 순매수포지션은 7월말 -0.8만계약에서 8.23일 -1.7만계약으로 마이너스 폭 확대

□ [전망] 국제곡물가격은 본격적인 수확철의 시작으로 전반적인 수급여건이 개선되겠으나 날씨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Weather Market이 이어질 소지

- 주요국 농업기상여건과 함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수출 상황, 중국 수요둔화 우려, 전반적인 원자재시장 투자심리 등 변수가 상당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cents/부셸)〉

	8월(a) ¹⁾	'22.3Q(f) ²⁾	4Q(f) ²⁾	'23.1Q(f) ²⁾	2Q(f) ²⁾
소맥	784.33	1,095(+25)	1,195(-5)	1,040(-10)	1,035(-140)
옥수수	632.08	790.24(+45.2)	785(-5)	770(-5)	750(-5)
대두	1,569.86	1,590(-5)	1,600(-50)	1,550(-40)	1,575(-13)

주: 1) 8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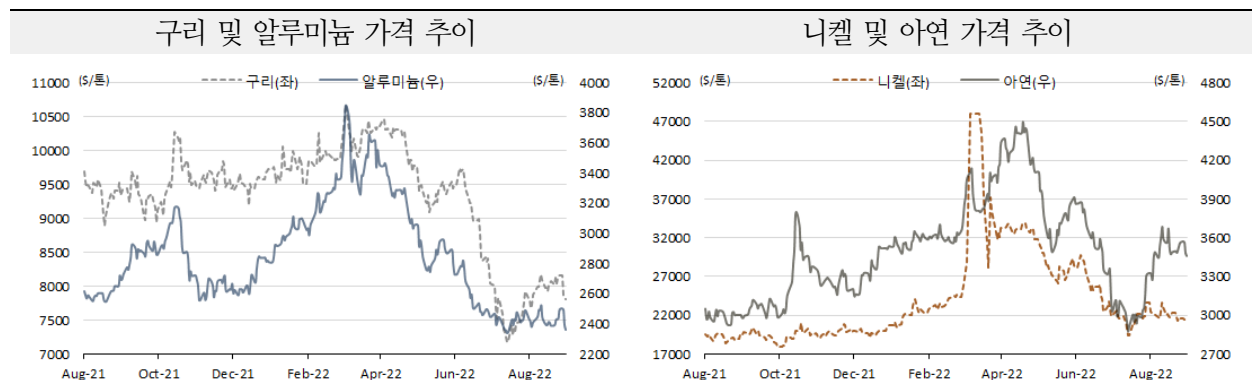
4. 비철금속

□ [8월 시황]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1.5%, 알루미늄 -5.2%, 니켈 -9.3% 등

- 구리 및 알루미늄은 중국 경기부양 패키지, 남미지역 공급차질 지속 등으로 월 중반까지 반등했으나 주요국의 공격적 긴축 기조, 경기 우려 등으로 월말 무렵 하락세로 전환
- 니켈은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품질 제품의 생산 증가 전망,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하락. 아연은 유럽 제련소 감산으로 +7.8%. 납은 경기 우려로 -2.4%

품목	7월말	8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 동월비(%)	평균가격	
						'21.	'22.(ytd)
구리(\$/톤)	7,917.5	7,801.5	-1.5	-19.7	-18.1	9,293.5	9,235.4
알루미늄(\$/톤)	2,488.5	2,359.0	-5.2	-16.0	-13.2	2,485.9	2,908.7
니켈(\$/톤)	23,619.0	21,411.0	-9.3	3.2	9.5	18,466.9	26,009.2
아연(\$/톤)	3,308.5	3,459.5	4.6	-2.1	15.2	3,007.3	3,656.7
납(\$/톤)	2,034.5	1,950.0	-4.2	-15.4	-13.6	2,189.4	2,199.6
금(\$/온스)	1,765.9	1,711.0	-3.1	-6.5	-5.7	1,799.3	1,844.2
찰광석(\$/톤)	104.3	95.2	-8.7	-16.5	-37.8	136.0	121.66

주 : 찰광석은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 기준.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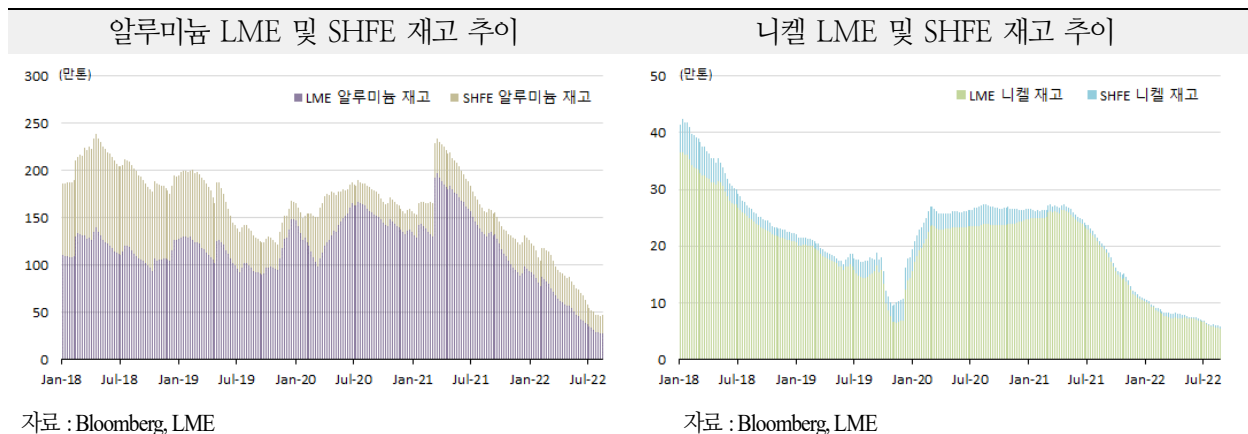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LME

자료 : Bloomberg, LME

□ [이달의 관전포인트] 연준 통화정책, 中 경기부양, 거래소 재고, 인니 니켈 수출세 등

- 미국 통화긴축 강화 전망. 중국은 대출우대금리 인하 등 완화 기조
 - 9월 FOMC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제기되고 연준은 양적긴축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위험회피심리 확산. 달러인덱스는 8.29일 장중 109.48로 20년래 최고치 기록
 - 중국인민은행은 8.22일 대출우대금리를 7개월만에 인하. 중국 국무원은 인프라 및 부동산 등 19개 부문에 대해 1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구리 : 칠레(세계 1위, 세계 생산의 27%) 생산 상반기 중 부진. 세계수급은 공급과잉 전환
 - 칠레 6월 생산은 코로나 재확산, 가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한 46.2만톤, 금년 상반기 누적 생산은 265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2%(Bloomberg). 국영 Codelco는 금년 생산 전망치를 161만톤에서 149~151만톤으로 하향조정
 - 다만 세계 수급은 콩고(세계 4위) 생산 증가 및 수요 부진으로 공급과잉을 나타냈으며, 금년 전체적으로도 공급과잉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알루미늄 : 세계 각국의 제련소 폐쇄 및 감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이 동시 예상
 -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슬로바키아,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제련소 폐쇄 또는 감축을 결정. 중국 쓰촨성도 가뭄과 폭염으로 연간 1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제련소를 임시 폐쇄
 - 금년 수요는 유럽 에너지 위기,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역성장이 예상. 전체 수급은 수요부진이 공급차질을 상쇄하여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
- 니켈 : 인도네시아 수출세 부과 예고, 중국 新에너지차(NEV) 취득세 면제 연장
 - 인도네시아는 자국 정련산업 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3분기부터 저품위 제품인 니켈선철과 페로니켈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계획. 수출세율은 2~3%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국제 니켈가격 상승을 초래할 소지
 - 중국은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를 포함한 NEV의 취득세(10%) 면제기간을 '23년말로 연장. 이는 배터리 관련 니켈수요 확대 요인
- 거래소 재고 :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상해선물거래소(SHFE) 니켈 재고는 거의 소진
 - 알루미늄 LME 재고는 제련소 감산으로 '21년 3.19일 196만톤 → '22년 8.26일 28만톤으로 86% 감소, 니켈 SHFE 재고는 16주 연속 감소하며 3,500톤 수준에 불과
 - 구리 LME 재고는 8.26일 12.1만톤으로 3월 저점(7만톤)에서 소폭 증가



□ [전망] 국제비철금속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수급이 개선되고 경기에 대한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하방압력이 이어질 전망

- 현재 수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이나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개선될 전망. 핵심 비철금속 품목들은 금년~내년 공급과잉으로 전환 예상
-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긴축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소지
 - 알루미늄 가격은 높은 에너지 비용, 유럽 제련소 감산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으로 향후 3개월간 현 가격대(\$2,400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Citi)
- 다만 각국의 환경규제에 따른 생산능력 제약으로 공급증가율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낮은 재고 수준 등은 비철금속 가격의 하방경직 요인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톤)〉

	8월(a) ¹⁾	'21.3Q(f) ²⁾	4Q(f) ²⁾	'22.1Q(f) ²⁾	2Q(f) ²⁾
구리	7,970.5	7,900 (-100)	8,100 (-200)	8,400 (-)	8,375 (-)
알루미늄	2,423.9	2,482 (-18)	2,600 (-)	2,600 (-)	2,650 (-)
니켈	22,134.5	23,231 (-151)	23,000 (-)	21,500 (-)	21,500 (-)
아연	3,459.5	3,375 (+25)	3,400 (+58)	3,300 (+50)	3,300 (-)
납	2,071.1	2,000 (-)	2,075 (+42)	2,000 (+26)	2,050 (+42)

주: 1) 8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혹은 jsoh@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